

창간 1990년 5월 5일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Press

2022년 3월 31일 제131호

학교 홈페이지 : www.kafna.ac.kr

www.instagram.com/mnd_kafna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서 첫발을 내디딘 신입 소위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제66기 온비' 입학식 거행

강점숙 학교장 "꿈 향해 도전과 전진"
 85명(남8,태국1) 신입생도 새 출발 다짐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이자 정예 간호장교를 향한 제66기 신입생도들의 입학식이 본교에서 거행됐다.

입학식은 지난 2월 25일, 코로나19로 교내 간부와 재교생도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교 대연병장에서 거행됐으며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학교장 강점숙 준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66기 기수명인 온비는 '온누리를 비출 우리'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사관생도로서의 각오를 담고 있다.

26.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입학한 85명의 신입생도들은 "뜨겁게 도전하고 드높이 성장하라"라는 모토 아래 지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사관생도로 거듭났다.

2년 황주경 기자
 hjkrisa@naver.com

한국 나이팅게일의 후예 육·해·공군 간호장교 77명 임관

"국가, 軍과 함께" 국군간호사관학교 62기 졸업·임관식
 대통령상 최유지 소위, 국무총리상 이현지 소위 영예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국군간호사관학교 62기 신입 소위들이 당당히 간호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관련기사 2면 5면]

지난 3월 10일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학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교내 간부 및 재교생도의 열렬한 축하 속에서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4년간 뛰어난 학업성과 모범적인 생도생활로 귀감이 된 10명의 신입 소위들에게 우등상이 수여됐다. 정부포상으로 대통령상은 최유지 소위, 국무총리상은 이현지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은유 소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합참의장상은 조태진 소위, 한미연

합사령관상은 김해민 소위, 육군참모총장상은 윤수현 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주현아 소위, 공군참모총장상은 서수빈 소위가 각각 받았다.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졸업생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사 초청 없이 SNS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가족들은 영상편지로 생도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보내 "간호장교들은 우리 국민과 군이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큰 힘이 되어 주었다"며 62기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했다.

문대통령은 이어 "이제 여러분은 군의 무발전의 주역으로 명예로운 역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국민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국민 결의로 달려갈 것"을 당

부하며 신입 간호장교들의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졸업 축사를 통해 "동기생들과 나눴던 우정과 추억을 깊이 간직하고 자국의 군 의료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선배 간호장교들이 이룩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또 다른 미래를 열어나갈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졸업생 대표로 임관 제대를 지휘한 오효진 소위(62기)는 "77명의 동기들과 함께 4년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생도생활을 통해 경험했던 여러 도전을 바탕으로 주저하지 않고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명예로운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유지 공군소위는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간호장교의 길을 택했다"며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과 국민에게 치

유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7명의 신입 장교(태국 수탁생 1명 포함)들은 지난 2019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위기 상황 속 생도 신분으로 경기·충청 지역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돼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임무를 수행을 한 바 있고 국민의 군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신입 소위들은 '진리의 탐구, 사랑의 실천, 조국의 등불'이라는 교훈 아래 지난 4년간 정예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역량을 쌓았다.

지난 2월 간호사 국가고시에 전원 합격한 이들은 임관식 후 국군의무학교에서 3주 동안 신입 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받고, 전국 군 병원에서 간호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4년 김지수 기자
 spp9623@naver.com

제131호 주요기사



- 1면 종합/62기 졸업 및 임관
- 2면 종합/제28대 학교장이 취임식
- 3면 집중조명/쇼트트랙
- 4면 기획/재난간호교육
- 5면 기획/간호사관생도의 모든 것
- 6,7면 문화/봄, 설레이는 계절의 시작
- 8면 전면광고/임관축하

3년 오찬설 기자

“뜨겁게 드높게 비행하는, 온누리를 비출 우리”

제66기 온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신입생도들의 첫 걸음을 환영합니다—

강나연 강하영 강효림 구민주 권서린 권하윤 김가인 김규민 김나연
 김나현 김다운 김민경 김민영 김민지 김서현 김소은 김예원 김현진
 남예송 문소현 박민솔 박선우 박수경 박수영 박시울 박지은 박차연
 박혜성 박희지 배서영 백승욱 백윤지 석지원 성가영 송지영 신희준
 안상우 안혜진 오세은 오은지 오인경 유윤경 윤지원 이다영 이다은
 이동제 이명주 이민정 이서영 이서윤 이수민 이승우 이승현 이에림
 이유민 이유찬 이주현 이지민 이현승 임성은 임수진 임주령 장영난
 장윤서 장은수 장현진 전소연 전지원 정가영 정윤서 정윤수 정훈지
 최규리 최승희 최유리 최재연 최주안 한동현 한 별 허서안 현자령
 홍수연 황도연 황현아 박가미



▲국군간호사관학교 제28대 학교장 강점숙 준장이 이·취임식 후 전임 정의숙 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8대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강점숙 준장 취임

“변화 주도하고 발전하는 학교 만들 것”...전임 정의숙 준장은 전역

국군간호사관학교 제28대 학교장에 강점숙 준장(29기)이 취임했다.

지난 12월 31일 본교 백합관에서 내·외빈과 교내 간부 및 일부 생도들만 참석한 가운데 제28대 학교장 이·취임식과 전임 학교장 정의숙 준장(28기)의 전역식이 진행됐다.

신임 학교장 강점숙 준장은 국군간호사관학교 29기로 임관해 이라크 자이툰사단 간호과장,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과장 및 의료정보관리처장, 국군수도병원 간호부장, 간호병과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강점숙 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언제든지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학교의 주체는 사관생도들”이라며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면서 변화를 주도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임과 전역식을 함께 한 전임 학교장 정의숙 준장은 신임 학교장 강

점숙 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했다.

제27대 학교장 정의숙 준장은 국군간호사관학교 28기로 임관해 국방부 보건정책담당, 육군본부 의무실 의료체계과장,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부장, 의무사령부 의료정보관리처장, 수도병원 간호부장, 간호병과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며 군 의료발전에 기여했다.

이날 전역한 정의숙 장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가 위기에 대처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38년 간의 군 복무를 명예롭게 마쳤다.

3년 김희준 기자
si23456@naver.com

제32대 생도대장에 이순영 대령 취임

신임 이순영 대령 “열린 마음으로 소통, 생도 성장 응원할 것”
이임 김윤주 대령 “생도들의 심없는 열정에 감사...행복”

지난 12월 31일, 이순영 대령(31기)이 제32대 신임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장에 취임했다.

이날 본교 백합관에서 거행된 이·취임식은 정의숙 학교장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참석해 새로 취임하는 생도대장을 엄숙히 맞이하며 단결과 발전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는 명령 낭독, 지휘권 이양, 학교장 훈시, 이임사, 취임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순영 대령은 국간사 31기로 임관한 뒤 군진간호연구소장 및 교수부장 등 학교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또한, 군 의료 발전 주역으로서 국군의무사령부 예방의학처장 재임 간

‘코로나19 백신’을 발간하는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앞섰다.

이순영 대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교인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린 마음으로 생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생도들의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임한 김윤주 대령은 생도들에게 “쉽없는 열정으로 성장하며 빛을 발하는 여러분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주인공이고 역사이다”라며 “여러분의 생도대장이라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4년 김서진 기자
sj3489@naver.com



▲이·취임 생도대장과 대대지휘관무생도, 생도대 참모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졸업생도들 사랑과 봉사의 실천 다짐"

62기 별하리 졸업메달수여식

“별처럼 하늘 아래 빛날” 62기 졸업생도들이 학교 동문임을 상징하는 졸업메달을 수여받으며 신임 간호장교로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2월 23일 본교 백합관에서 62기 생도들의 졸업메달수여식이 거행됐다. 졸업메달 수여식은 졸업생도들이 사랑과 봉사의 실천을 통해 군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정에 간호장교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자리이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졸업메달 수여, 나이팅게일 선서, 격려사, 축하, 송사, 답

사, 국간사 발전기금 약정식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졸업메달수여식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63기 생도들이 대표해 참석했으며 강점숙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순영 생도대장, 박미옥 총동문회장 등 여러 내외 귀빈들도 행사에 참여해 졸업생도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62기 생도들은 졸업메달수여식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되새겨 지난 4년간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하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간호장교가 될 것을 다짐했다.

2년 임서영 기자
limsy4595@naver.com

제66기 명예선서와 함께 첫 생도생활 시작

제66기 명예선서식 거행

제66기 신입생도들이 명예와 고결한 헌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명예로운 사관생도로의 출발을 알렸다.

지난 2월 24일, 본교 생도대 원형화단에서 열린 명예선서식은 입학식에 앞서 신입생도에게 학교의 명예 전통을 계승하면서 사관생도의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의식이다.

명예위원회 위원장 김채희 생도(63기)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신입생도 입장, 개식사, 촛불 점화, 사관생도 명예선조 제창, 신입생도 명예선서, 예모깃 수여, 명예제언,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입생도들은 명예위원장 생도로부터 시작된 촛불을 한 명씩 이어 받으며 스스로의 명예로 자신과 주변을 밝힐 것을 다짐했다.

재교생도들은 사관생도 명예선조를 제창하며 신입생도들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신입생도들은 선서와 동시에 명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6기 신입생도들이 명예선서식을 하고 있다.

예에 관한 책임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 이어 제65기 생도들이 신입생도들에게 생도의 높은 기상과 명예를 상징하는 예모깃을 수여했다.

예모깃을 수여받은 신입생도들은 자신이 이어나갈 경건한 명예심을 재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기초군사훈련중대 중대장 안상우 생

도(66기)는 “명예제언을 통해 제 명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명예제언에서 했던 다짐을 잊지 않고 명예로운 생도생활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년 황주경 기자
hjkrisa@naver.com

2022년 레츠고 대대 힘찬 시작

“생도 모두의 대대 만들겠다”

뜨거웠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인 2022년이 시작됐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은 지난 2월 23일 오전 본교 원형화단에서 지휘군무교대식과 진학식을, 오후에는 백합관에서 지환식을 거행했다.

지휘군무교대식을 통해 2022년 생도대를 이끌어 나갈 레츠고 대대, 하랑 명예위원회와 다른 양성평등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대대장이유정 생도(63기)는 “올해 생도대에 있을 변화의 순간에 걱정보다는 활기로 가득 찬 생도 문화를 생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며 “누군가의 대대

가 아닌 생도 모두의 대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본에 충실하며 열린 소통과 포용으로 생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휘군무교대식 후 1·2·3학년 생도들이 각각 한 학년씩 진급하는 진학식이 시행됐다. 진학식은 우등상 및 모범상 수여, 명령낭독, 진학신고, 학년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진학식에서는 교육과정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생도들을 대상으로 우등상 14명과 학교장 모범상 3명, 생도대장 모범상 3명 등 20명의 생도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휘군무교대식과 진학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생도들만 직접 참여했다.

그날 오후 백합관에서 학교의 명예와 전통성을 상징하는 졸업 지환을 후배생도가 임관하는 선배 소위 손에 직접 끼워주는 지환식이 거행됐다. 올해는 63기 동기회 주관으로 지환식이 대면으로 실시됐다. 63기 동기회장 생도가 62기 동기회장 소위에게 지환을 증정할 때 후배생도들은 임관 소위들에게 반지를 전해주며 이별의 아쉬움과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지환식에 참석한 63기 동기회장 임지현 생도(63기)는 “동기회장으로서 직접 주관하여 소위님들께 지환을 끼워드리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영광이다”라며 “졸업 및 임관을 축하드리고 마지막 1년을 자랑스러운 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3년 박성주 기자
pbd ae2747@naver.com

"국민치유와 나라에 헌신하는 간호장교 되겠다"

대통령상 수상 최유지 소위(62기)

인터뷰

“4년의 다해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힌 최유지 소위는 생도생활중 힘들고 지쳤던 순간마다 힘을 줬던 동기들과 부모님께 감사해 했다.

그러면서 “생도들 옆에서 힘써 주신 교수님들과 훈육진들께 감사하다”며 “이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영광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후회 없이 살자’입니다. 생도생활을 하면서도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며 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순간을 즐기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도생활 중 기억에 남는 순간은

3학년 중대장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입니다. 바쁜 학과와 실습,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야 할 일은 많았지만, 그때 받았던 많은 응원과 위로들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시 실습 중 생활치료센터 파견 경험이 실



최유지 소위(62기)

질적으로 국가 위기상황에 보탬이 될 수 있었기에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후배생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떠한 경험도 무의미한 경험은 없으니 하고자 하는 것들에 미리 겁먹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생도생활을 마치고 되돌아보니 모든 경험은 저의 피와 살이 되어 저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망을 안겨줬던 경험도 지금 떠올리면 결국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후배생도들이 생도생활 때 할 수 있는 것들에 도전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길 추천합니다.

▶신임 소위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준비된 간호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것만큼 공부하고 매 순간에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재가 되겠습니다!

4년 김서진 기자
sj348@naver.com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파헤쳐 보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의 하나 된 열정과 애국심에 불을 지폈다. 특히 한순간에 긴장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종목인 쇼트트랙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휩쓸며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올해 상반기 화제를 모았던 쇼트트랙, 그 흥미 속 숨겨진 비밀을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대한민국 금빛질주의 효자로 자리잡은 쇼트트랙

경기규칙 의외로 까다롭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열린 호응과 관심 속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20일 막을 내렸다. 대회종목은 노르딕복합, 루지, 바이애슬론 등 15개의 종목이 있었으며 그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쇼트트랙이다. 쇼트트랙은 첫 참가인 1992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총 33개의 금메달 중 26개를 획득하며 동계올림픽의 효자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선수들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쇼트트랙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일종이다. 흔히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알고 있는 것이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고 일반적으로 쇼트트랙으로 알고 있는 것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다.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두 명씩 출발해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쟁 방식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조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술이 중요하다. 또한 롱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400m의 트랙 위에서 경기하지만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은 111.12m의 트랙에서 경기한다.

쇼트트랙은 공정한 경기와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반칙 규정을 두고 있다. 고의로 다른 선수를 밀치거나 상대를 방해하면 임페딩 반칙이 주어지고 부적절하게 코스를 가로질러 다른 선수의 주행에

피해를 주면 크로스 트랙 반칙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트랙 안쪽을 지나면 오프트랙 반칙을 받고 결승선에서 스케이팅 날을 들거나 몸을 던지면 실격을 하게 된다. 복장 위반 반칙도 존재하는데, 이는 쇼트트랙이 좁은 공간에서 순위경쟁을 하는 종목이기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진 규칙이다. 선수들은 반드시 헬멧과 장갑,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며 규정에 어긋나는 장비는 착용할 수 없다. 다양한 종류의 반칙을 판정하는 것은 심판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에 쇼트트랙의 반칙 판정은 논란에 휩싸이기 쉽다.

대한민국은 정식 종목이 된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쇼트트랙 금빛 질주를 이어왔다.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국민들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빛 질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띤 응원을 보냈고 대한민국 선수들은 값진 결과로 보답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아름다운 금빛 질주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4년 엄정원 기자
lmk5202@naver.com

마찰력과 공기저항을 이겨내는 힘

스케이팅 날과 경기복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

쇼트트랙은 순식간에 순위가 바뀌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순발력 있게 상황을 판단하며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종목이다. 쇼트트랙 선수들이 넘어지지 않고 빠르게 트랙을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스케이팅 날과 선수들의 경기복에 있다. 직선으로 뻗은 날은 트랙의 곡선 구간 주행 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쇼트트랙 선수들은 새로운 스케이팅 날을 강철로 된 롤러 사이에 넣어 휘어지게 만든다. 이러한 '벤딩 작업'을 통해, 선수들은 스케이팅 날의 각도를 조절한다. 이로써 안쪽으로 휘어진 날은 곡선 구간에서 트랙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안정된 주행 자세를 유지해 앞 선수 추월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왼쪽 날보다 바깥쪽 발인 오른쪽의 날이 더 휘어있어 곡선 구간에서의 강한 마찰력 극복을 도와준다.

벤딩 작업과 함께 스케이팅 날의 가운데를 볼록하게 남기고 앞과 뒤 부분을 둥글게 깎아내는 '로그 작업'도 필수 작업이다. 로그 작업은 빙판에 닿는 면적을 줄여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하고 곡선 구간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게 한다.

쇼트트랙에서 스케이팅 날은 중심이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그 이유도 곡선 구

간 트랙에 있다. 선수들의 몸이 곡선 주로에서 왼쪽으로 기울 때, 쇼트트랙의 날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곡선의 트랙에서 몸의 균형을 잡는데 용이하게 한다. 만약 날이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있으면 곡선 주로에서 선수들이 왼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빙판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쇼트트랙 경기복은 선수들의 몸을 고정해주고 공기저항을 줄이는 필수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다. 선수들은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몸에 딱 달라붙은 경기복을 입는데, 경기복의 표면을 자세히 보면 돌기와 홈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표면이 매끄러우면 공기가 몸에 부딪힌 뒤 뒤로 밀려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공기가 몸을 뒤로 잡아끄는 '견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선수복에 돌기와 홈을 만들어 부딪힌 공기를 흐트러지게 하고 저항을 줄인다.

경기 도중 선수들이 앞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낼 때 허벅지 안쪽에 마찰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경기복에는 특수소재의 안감이 덧붙여 있다. 경기복 허리에는 딱딱한 우레탄 소재를 덧대어 선수들이 상체를 구부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근육 사용량이 많은 부위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한다.

이번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빛나는 노력과 그 결에서 항상 함께한 스케이팅 날, 쇼트트랙 경기복이 더해져 최선의 경기를 보여줄 수 있었다.

3년 강서연 기자
cyzh989898@naver.com

쇼트트랙 속 숨겨진 과학

힘을 극복하는 힘, 원심력과 구심력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은 여러 종목 중에서도 한국인에게 가장 큰 짜릿함을 선사한 종목이다. 이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쇼트트랙은 다시 한 번 동계올림픽 최고 메달 종목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쇼트트랙은 찰나의 순간에 경미한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종목이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빠른 속도로 원 모양의 트랙을 질주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쇼트트랙 종목에도 과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111.12m인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 직선 구간에서도 계속 곡선처럼 움직인다. 실제로 선수들이 움직이는 이동 궤적의 80~90%는 곡선 운동이며 이때 곡선 운동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한다.

먼저 원심력이란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원 궤도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을 말한다. 만약 원심력만 존재한다면 선수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물체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의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구심력과 함께 작용해 선수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쇼트트랙 선수들의 자세 역시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다. 쇼트트랙 선수들은 옆으로 기울인 상태

로 곡선 구간을 돈다. 이 자세는 구심력을 키워 원심력을 상쇄할 수 있다. 선수들은 빙판을 왼손으로 짚고 회전 중심 방향으로 몸을 최대한 비스듬히 기울여 좀 더 안정적인 자세로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스케이팅 날로 빙판을 강하게 밀어내면서 구심력을 높이는 데에는 강한 허벅지 근육이 필수적이다. 허벅지 근육은 인체 근육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양이 많은데, 근육은 에너지원이 되는 글리코겐의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폭발적인 힘을 쓸 수 있다. 그렇기에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허벅지 근육 단련에 힘쓰며, 많은 훈련량을 버티기 위해서 체력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진행한다. 실제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쇼트트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의 단단한 허벅지 근육이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극복하기 위해 자세, 장비, 그리고 신체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했다. 그 결과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빛을 발했다.

3년 이예은 기자
qhsdhlhd@naver.com

쇼트트랙에 적합한 신체적 조건

왜소한 체형, 강인한 하체근육

지난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쇼트트랙 선수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며 경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크고 근육질인 서양 선수들에 비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작은 체형과 강인한 하체 근육 덕분이다.

작은 체형은 쇼트트랙 경기 운영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쇼트트랙은 상대 선수를 견제하며 좁은 곡선 구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종목이다. 선수들은 곡선 구간에서 원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을 받는데, 체형이 크면 원심력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 쇼트트랙은 좁은 틈을 찰나의 순발력으로 파고드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낮은 신체 중심과 왜소한 체형에서 나오는 이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작은 체형뿐만 아니라 강인한 하체 근육도 쇼트트랙 경기에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쇼트트랙의 곡선 구간은 스피드 스케이팅의 곡선 구간보다 훨씬 많은 원심력이 작용하므로 원심력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허벅지 근육이 필수이다.

또한 치열한 몸싸움과 많은 코너링이 요구되는 쇼트트랙은 상대적으로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아 상체 근육보다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쇼트트랙 지상훈련은 단단한 코어 근육을 기반으로 엉덩이에 붙어있는 둔근, 넓다리 근육, 햄스트링의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 화면에 최민정 선수가 경기 전 코너 벨트 훈련을 하는 모습이 잡혔다. 코너 벨트 훈련은 벨트나 탄성 있는 밴드를 활용하여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을 맞추면서 다리 근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 중 키가 큰 편에 속하는 황대현 선수는 강한 원심력을 이겨내기 위해 코어의 힘, 하체 근육과 구심력을 키우는 훈련에 집중적으로 임했다고 밝혔다. 선수들은 자신의 불리한 체형과 조건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훈련량을 소화해 내고 있다. 빙상 위에서의 훈련과 지상에서의 근력 훈련을 체계적으로 병행한 노력이 비로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다.

2년 오나현 기자
ohnahyun0506@naver.com

재난간호 교육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005년 구급간호교육을 시작으로 재난 및 외상분야 특성화 교육, 해외 긴급 구호 등 재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민간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간호 교육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으로써 만족도가 매우 높다. 현재까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간호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위와 같은 교육이 의료진에게 왜 필요한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 국군간호사관학교 재난간호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는 재난간호교육 장면.

재난간호의 메카,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008년부터 군과 민간 의료 인력 대상 재난간호 교육 시행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2008년부터 진행된 재난간호 교육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재난간호 교육은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군과 민간 의료진 모두 자신이 가진 역량을 적재적소에 발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해 왔다. 위 교육은 대한간호협회의 민간 간호사 대상 교육 의뢰를 받아 2004년 '구급간호'에서 시작해 2008년 재해간호사 자격 인정 프로그램으로 지정됐고 2011년부터 '구급간호'에서 '재난간호'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지진, 전쟁, 전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며 매년 시행 중에 있다. 재난간호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은 재난지역 관리 도상훈련(환자 중증도 분류, 재난 외상환자 간호)과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구조·이송 훈련 등의 시뮬레이션 실습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2016년에 실시한 재난간호 교육은 필폐공간에서의 외상간호처치 시뮬레이션이 추가됐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해 재난상황에서의 심리간호 교육을 중점으로 재난심리 중재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어서 2021년에는 '화학 및 생물 재난 시 간호'를



주제로 개인보호장비 착용의 실습과 환자 제독 및 간호 등 화학·생물 재난 상황 대비 훈련을 진행했다. 본교의 재난간호 교육을 이수한 군, 민간 의료진들은 교육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자신의 간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본교에서 진행되는 재난간호 교육은 민간 교육기관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군진간호 훈련을 통해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가 위기 상황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군 간호 전문 교육기관인 본교에서는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고 다각화된 재난간호 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3년 안세희 기자
twin1love@naver.com

인터뷰

“재난간호교육은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 속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난간호교육 윤혜진 교수



인터뷰=구가영 기자(3학년)



재난시 심리간호 및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주제로 지난 2월 16일 본 교에서 재난간호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진행을 맡은 윤혜진 교수(54)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국내 재난간호교육의 메카"라고 소개하며 "이 분야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특히 지역사회도 병원 기관도 나름대로의 재난 대응 계획과 재난 대응 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간호장교와 공직에 계신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갖고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난간호 교육은 꼭 배워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재난간호교육에 대해 소개한다면

재난간호교육과정(DNEC, Disaster Nursing Education Course)은 2005년 민간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구급간호' 교육과정이 시초입니다. 2008년에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정식 등록되었고 올해로 1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에볼라 파견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등 재난간호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던 국내 간호교육 분야에서 본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상훈련 및 모의상황 훈련이 포함돼 타 교육기관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실제적인 교육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간호사가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사례를 접하고 토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재난피해자들의 정신·심리적 증상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심리지원요원으로 서 지녀야 할 역량과 원칙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재난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진행 후 이에 대해 토의하며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다양한 재난에서 간호사의 심리 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함인데 재난 상황에서 심리 지원이 중요한 이유와 어떤 재난 관리단계에서 본 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능력이 늘어난 만큼 재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역량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지원원은 재난 대응 단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활동이지만 재난관리단계의 어느 단계에서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예방 단계에서는 평소 정신건강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신건강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재난 심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심리지원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체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심리지원 체계가 작동해야 하며, 복구 단계에서는 심리지원의 지역사회 연계가 이뤄짐과 동시

에 재난 심리지원에 대한 최신화된 지식이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호장교뿐만 아니라 민간 간호사에게도 재난간호교육을 추천하는 이유는

본교는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재난간호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재난현장에도 어김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4년 진도여객선이 침몰했던 대규모 참사에도 국방부 예하 기관 중 가장 빠르게 지원인력을 투입했으며 7개월에 걸쳐 유가족과 구조요원들에게 심리 지원을 포함한 의료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0년 초 대구·경북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졸업 예정이었던 60기 학생들이 곧바로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었던 것도 크고 작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국가의 부름을 마다하지 않았던 본교의 교육역량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민간의료체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상황을 생각한다면 일반 간호사들에게도 재난관리능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현재까지 재난간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들 중 민간간호사의 비율은 43.7%로, 최근 더욱 증가했습니다. 지역사회도 병원 기관도 나름대로의 재난 대응 계획과 재난 대응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간호장교와 공직에 계신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면허를 갖고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난간호교육은 꼭 배워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학년도(제67기)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

모집정원 90명 (남 10% 여 90%)

원서접수 2022.6.17.(금) 10:00 ~ 6.27.(월) 18:00

전형일정

1차 시험	2022.7.30.(토)
2차 시험	2022.9.20.(화) ~ 9.30.(금)

※ 코로나19관련 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 모집요강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입시자료 신청 기능)

TEL. 042)862-5265



국군간호사관학교
KAF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간호사관생도 / 입교부터 임관까지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기초군사훈련을 시작으로 4년간의 생도 생활 후 소위로 임관한다. 임관 후 전국에 있는 군 병원 및 사단에 배치돼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정예간호장교'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간다. 이들의 입교부터 임관까지의 삶은 어떤지, 임관 후의 삶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 [편집자주]



"생도생활 아쉬움 남을 거면 반대 생활도 해보길"

해군포항병원 외래응급간호와 임정아 중위(61기)



인터뷰 ▶생도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꼭 한 가지 선택을 하지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외출이나 외박 후 저녁에 룸메이트 동기들과 각자 챙겨온 음식을 나눠먹던 시간입니다. 정말 사소하고 짧은 순간들이지만, 혼자보다는 함께 먹는 음식이라 더 맛있고 즐거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2020년 초 대대인사참모를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침들과 어두워져가는 분위기, 여러 갈등 속에서 제 스스로도 과연 이게 옳은 방향과 방식이 맞는지 끝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선택을 하며 생활했지만 모든 순간이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중위로 진급한 지금, 후배생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말이 있다면 후회 없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지다가도 순식간에 지나가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과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고, 힘겹게 고민하고, 기회가 오면 잡아보고, 또 많이 웃고 울고 화내고 사과하고 많이 용서했으면 합니다. 모든 순간이 모여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며 지방이 되어줄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4년, 이렇게 해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면 그 반대의 행동을 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해군 간호장교는 육군 간호장교와 어떻게 다른지

저는 현재 해군포항병원 외래응급간호와 소속으로 응급실과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에게 여러 처치와 간호 서비스 제공, 의료 장비 및 물자 관리 등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해병대 1사단이나 교육훈련단 예방 접종 지원을 가기도 하고 행사 시 의무지원 등 간호 실무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장교로서의 역할은 해군, 육군 큰 차이 없이 환자 간호, 장병 건강증진 및 군 전투력 유지 등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다른 점을 꼽자면, 근무지가 동해, 서해, 남해를 따라 해안가 및 도서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군사관학교 순항 훈련 등 여러 훈련에 참가해 함정 탑승 및 여러 국가와 함께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크기를 비교했을 때 해군은 50명 내외의 소수 집단으로, 선배 상관관이 근무자 간에 서로 챙기며 돈독하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병원의 의무대 근무 시 단독인 경우가 많고, 비교적 낮은 연차이더라도 육군 대비 높은 직급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일찍 중간 관리자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주도적인 선택과 책임입니다. 깊은 고민 끝에, 또는 충동적으로라도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핑계나 회피 없이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은 누가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과거의 나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가질지언정 남을 탓하거나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린 선택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발전해나가며 나를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년 김민서 기자

mms101300@naver.com

"멋진 간호장교로 다양한 배움 실천할 것"

울림대대 대대장 생도 김해민 소위(62기)



인터뷰

4년간의 생도 생활을 마치고 임관하는 김해민 소위(62기)는 울림대대 대대장 생도로서 지난 1년간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대를 이끌었다. 2022년 3월 10일 김해민 소위(62기)는 영광스러운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을 수상하며 신입 간호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영예로운 임관을 했는데 소감은

생도생활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기에 섭섭함과 아쉬움보다는 후련함과 성취감이 더 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임관을 앞두고 보니 제 곁에는 헤어짐이 무서울 정도로 소중한 인연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대장 임기를 마친 소감과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지원섭섭'이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지만 이제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이라는 사실이 아쉽습니다. 대대장 생도로 근무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임관식 당일에 받은 후배의 편지입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 대대를 경험하는 저이지만 울림대대는 언제나 제 최고의 대대일 것입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그 편지에는 대대장 생도로서 들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4년간의 생도생활에서 힘이 되어준 존재가 있다면

제가 1학년이었을 때 당시 대대장 생도였던 59기 서지인 선배님이 바로 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생각과 달랐던 생도생활에 방황했던 시절, 선배님을 보며 마음을 다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제게 꿈이 되어주신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신임 소위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신임 간호장교로서 제 목표는 배움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호 실무를 열심히 익혀 멋진 간호장교가 되는 것은 물론, 생도생활 중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배움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제가 요즘 삶에 있어 가장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쉽게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김정은 기자

kke9870@naver.com



"인성과 리더십 반드시 챙기고 싶어"

기초군사훈련 중대를 이끈 안상우 생도(66기)



인터뷰

안상우 생도(66기)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된 기초군사훈련에서 중대장 예비생도의 임무를 수행했다. 안 생도는 "명예로운 사관생도,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간호장교의 길을 선택한 동기는

예전부터 항상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문성을 살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간호장교를 알게 됐고 큰 매력을 느껴 지원했습니다.

▶기초군사훈련 기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전투준비태세훈련 이후 있었던 백합 의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멋있게 예복을 입은 명예위원장 생도님께 받았던 백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백합을 받는 순간은 열심히 달려왔던 훈련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입교하기 전과 많이 달라진 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끈끈한 동기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입학식 때 신입생도를 대표하여 입학 선서를 했는데

신입 생도를 대표해 입학 선서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하기에 설레었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게실 분들과 학교장님과 학교 간부님들께 처음으로 저희 66기를 알리는 시간이었기에 긴장도 됐습니다. 하지만 선서를 무사히 끝낸 후에 동기들, 상급 생도님과 간부님들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셔서 그 긴장감이 뿌듯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있을 생도생활에 대한 다짐과 기대는

생도생활을 하면서 인성, 리더십 이 두 가지를 꼭 챙겨보고 싶습니다. 먼저 인성 면에서는 명예로운 사관생도가 되고 싶습니다. 리더십 면에서는 기초군사훈련 동안 제게 많은 배움을 준 지휘근무를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있을 생도생활이 사관생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됩니다. 기초군사훈련 때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좋은 기회들이 올 때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는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우리 사회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에 왔고, 사랑을 실천하는 간호장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년 한운서 기자

405line@naver.com





봄, 설레이는 계절의 시작

따뜻한 공기가 코끝을 살짝 간지럽히는 계절이 왔다. 봄은 사계의 시작이자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설렘의 계절이다.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민들레 꽃씨를 따라 봄은 덧없이 평화롭게 흘러간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계절의 아쉬움을 달래려 이번 문화면의 테마를 '봄'으로 선정했다. [편집자주]

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정의하는 니만의 봄

봄의 풍경, 그리고 청춘

기나긴 밤이 빛을 잡아먹는 겨울이 계속될 것 같아도, 결국 봄은 온다.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소중히 지켜낸 생명력을 자랑이라도 하듯, 부서지는 햇살에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화사하게 피어난다. 회색빛 겨울을 이겨낸 만물은 역동하고 언제 겨울이 왔다 갔었냐는 듯 세상은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그런 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 얼마나 찬란한 것이길래 푸른 봄, 청춘(靑春)이라는 귀한 이름을 붙여 주었는지 새삼스레 감탄하게 된다.

하지만 오늘날의 청춘이 마냥 '맑음'은 아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 혜원은 도시에 지쳐 어릴 적 도망치듯 떠나왔던 고향을 다시 찾아 사계절을 보낸다. 도시의 공허함에 지친 자신을 달래기 위해,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그런 주인공에게 사계의 시작인 봄은 어떤 의미였을까.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봄을 만끽하는 방식을 따라가며 각자의 봄에 새 이름을 붙여 보자.

새순이 돋은 논밭과 화사하게 피어난 노란 유채꽃 사이 오솔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혜원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장의 풍경이 된다. 넓은 마당이 딸린 고즈넉한 한옥에 들어선 혜원은 봄기운에 취해 별 드는 마루에서 꾸벅거리는 백구와 인사를 나눈 뒤, 텃밭으로 가 흐드러진 봄꽃을 양손 가득 담는다. 어머니를 닮아 뛰어난 음식 솜씨로 똑딱 만들어 낸 오일 파스타 위에 봄을 얹으니, 씹새콤한 꽃향기가 코를 간질이는 꽃 파스타가 완성된다. 평범한 일상에 계절 한 방울을 더해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즐기는 혜원의 모습은 봄이 회복이자 치유의 계절임을 알려준다.

봄날에 내린 눈처럼 희고 고운 아카



시아는 바라봄만으로 마음에 평화를 안겨준다. 올망졸망 달린 아카시아 꽃송이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그 위에 하얀 튀김옷을 묻혀 기름에 빠뜨린다. 발바닥을 간질이면 발가락을 활짝 펴는 갓난아이처럼, 기름방울의 간질임에 꽃송이들은 더 환하게 피어난다. 얇고 바삭한 튀김옷을 베어 물면 은은하게 입안을 감싸는 아카시아 향기를 음미하는 경험은 잠깐 스쳐가는 봄이 아니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깨닫게 된다.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순간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여유를 갖자고, 봄은 우리 귀에 작게 속삭인다.

도시는 화려하지만, 그 반짝임에 눈이 멀어갈수록 내면의 쓸쓸함은 더 짙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따스함을 쫓아야 하기에 혜원이 그랬듯 마음 속에 도망갈 계절 하나, 봄을 품고 살자. 그리고 그 시리도록 푸른 봄에 각자의 희망을 담아 새로이 시작하는 우리의 청춘을 그려내자. 청량한 여름과 고즈넉한 가을, 눈부신 겨울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다.

3년 정선주 기자

rhythmofsummer@gmail.com

다가온 벚꽃의 계절, 봄

벚꽃의 축제, 진해 군항제

모두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꽃이 피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봄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꽃은 무엇일까. 바로 벚꽃이다. 벚꽃으로 유명한 축제 중에서도 진해 군항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군항제의 시초는 1952년 4월 13일 진해 북원로터리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충무공의 업을 기리기 위해 거행된 추모제이다. 이후 11년 동안 거행되어 오던 추모제는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이어가고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문화축제로 새롭게 단장했고, 명칭도 군항제로 변경됐다. 축제는 벚꽃의 개화 시기에 따라 매년 3월 말~4월 초 열흘간 열렸는데, 2011년부터는 4월 1일~10일로 날짜가 고정됐다.

진해의 벚나무는 일제강점기 진해에 군항이 건설되면서 도시미화용으로 심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광복 후 시민들은 벚나무를 일제의 잔재로 여겨 나무를 잘랐다. 하지만 식물학자들에 의해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닌 제주도로 밝혀지면서 벚나무



살리기 운동이 시작됐다. 이후 진해는 화려한 벚꽃 도시로 거듭났고 진해 곳곳에서 왕벚나무를 볼 수 있게 됐다. 벚꽃 명소로는 진해 내수면환경생태공원, 여좌천 로망스다리, 장복산조각공원, 경화역, 제철산공원, 진해루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여좌천 로망스다리는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로망스>의 촬영지로 알려진 벚꽃 명소다. 다리를 가운데로 양쪽에 펼쳐진 벚나무들이 장관을 이뤄 진해 군항제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군항제 기간 동안에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기지사령부의 영내 출입이 가능하며, 해군·이충무공 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과 실물 크기로 제작된 거북선을 관람할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펼쳐지는 해군 헌병 기동대의 퍼레이드도 감상할 수 있으며, 군함에 승선해 볼 수도 있다.

충무공의 업을 기리면서 벚꽃을 즐기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최근 3년간 진해 군항제는 취소됐다. 코로나가 완화되어 다시금 찬란하게 피어나는 진해의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내년을 기약해본다. 벚꽃으로 알려진 진해 군항제가 충무공의 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2년 최예빈 기자

yebin3021@naver.com

작은 정성으로 큰 힘을, 발전기금과 함께

▶ 동문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기수	성명	출연료	출연료
1.	신현재	30	360	18	서경희	6	98	25	노경숙	9	596	30	이경희	3	96	33	장영숙	3	192	38	곽영녀	10	463	41	한수경	9	63	47	윤호은	9	327	50	문희진	15	308	54	김경연	9	288	55	김초이	4	126	58	이재은	9	213
3.	이희자	3	124	19	박순화	30	2,110	25	심현옥	5	756	30	신정희	6	86	33	배미선	6	90	38	박은정	3	91	42	고미연	6	480	47	박윤정	3	30	50	박기현	3	118	54	장선애	6	192	55	변선주	3	84	58	오연주	3	72
9	이옥금	3	119	19	이경희	3	460	25	이경란	9	330	30	배희순	9	679	33	양지인	6	418	38	신현순	3	193	42	김연제	3	282	47	김지현	6	89	50	정지은	6	216	54	김재서	6	218	55	권은지	6	166	58	유성영	6	89
13	김민희	9	270	19	김명희	3	159	25	김종오	2	240	30	서광숙	9	772	33	고영옥	3	176	38	임태호	3	158	42	김연성	3	240	47	이상원	9	232	50	최민선	15	720	54	황산우	6	192	55	남은정	4	126	58	유민지	3	158
13	김민희	15	1,183	19	한희숙	3	40	25	이순실	3	110	30	함은희	4	204	33	임주연	3	8	38	이미영	1	28	42	김윤미	6	232	47	오유리	3	83	50	홍은지	3	191	54	정선주	3	166	55	서동연	9	252	58	유재인	7	180
13	양민숙	3	310	19	김서경	3	39	26	김미경	3	312	30	신은희	3	124	34	김윤주	6	849	38	황선형	3	249	42	박경아	3	260	47	정은경	9	259	51	김수연	6	242	54	천은주	6	190	55	손민정	2	140	58	이세민	3	142
13	유경희	6	424	20	신혜경	17	2,209	26	배미애	3	312	30	김은영	6	48	34	김은영	3	156	38	최은정	6	268	42	장유미	3	239	47	조현아	3	122	51	이현지	15	331	54	송희정	7	286	55	박정은	6	168	58	이연주	6	142
14	함영희	15	744	20	김흥옥	3	62	26	이영선	3	290	30	최민희	15	120	34	나정순	16	1,172	38	서경환	9	374	42	최귀영	3	240	47	정은영	6	218	52	박주연	15	825	54	강다혜	6	184	55	김아라	6	166	58	이윤각	6	142
14	이옥경	3	124	21	류후자	3	144	27	남선별	3	269	31	이소영	9	699	35	양유민	6	414	38	김서희	3	11	42	최선영	6	290	48	박영은	3	66	52	양호진	6	100	54	이하니	5	284	55	소리나	6	168	58	임재원	3	70
14	손경선	3	124	21	박명화	6	1,460	27	양해자	3	358	31	권성자	3	96	35	권영호	9	533	39	김은경	3	165	43	김미영	9	334	48	최희진	3	153	52	이민지	3	90	54	김남희	6	192	55	김수희	6	166	58	정미영	9	216
14	박혜선	3	124	21	이병옥	3	544	27	이현옥	3	126	31	김유순	3	96	35	김수정	9	700	39	송수일	6	200	43	임보선	3	194	48	황다혜	6	294	52	임미화	6	240	54	김태희	9	288	55	정주희	9	249	58	정은빈	3	148
14	이경자	3	104	21	장주완	6	448	27	윤현옥	3	153	32	김은숙	6	474	36	김춘숙	6	206	39	이승희	18	666	43	이현희	2	200	48	박계영	6	236	52	최소혜	3	120	54	민수이	4	103	56	권재혁	9	213	58	정민희	9	213
15	안정남	3	1,373	22	권영숙	3	411	27	홍경숙	3	53	32	맹소주	6	384	36	한은석	6	832	39	한 정	3	238	43	이호진	3	229	48	노혜주(노영민)	3	175	53	권재은	10	135	54	한은혜	6	74	56	김보람	3	101	58	조현경	3	72
16	유경순	30	1,240	22	문숙희	3	125	27	이명숙	9	332	32	문숙남	6	504	36	박영경	10	126	40	글경림	9	403	43	장정화	20	207	48	이수진	15	72	53	김다래	6	216	54	이윤지	9	288	56	김유진	6	84	58	허유정	9	213
16	문정순	3	410	22	최기화	9	291	27	정옥수	6	399	32	윤은경	3	117	36	황영숙	6	462	40	김소정(송상현)	3	92	43	전문경	9	368	48	송미애	9	256	53	김남경	6	216	54	윤해진	1	109	56	김은진	1	106	57	국희영	9	177
16	이재순	15	1,825	23	홍순이	3	81	27	박옥형	3	54	32	윤혜경	3	118	36	김경자	6	191	40	김상혜	15	1,005	43	황보주	6	479	49	이문선	6	264	53	김주희	6	216	54	하지영	9	288	56	김현정	6	171	57	유단비	15	235
16	오영순	3	164	23	왕영희	3	256	28	이희경	9	551	32	이현숙	3	118	37	민민정	15	642	40	김혜원	15	661	43	황선영	12	302	49	임지매	3	76	53	백서영	4	337	55	나성주	6	168	56	김혜영	9	216	57	이새영	6	97
16	이점순	3	122	23	윤원숙	6	1,588	28	정영숙	15	1,570	32	김명희	3	118	37	이분희	3	53	40	남정민	3	369	43	황지성	6	294	49	전소연	6	223	53	서소화	6	216	55	김수영	6	168	56	박성지	9	123	57	박소연	9	84
17	변향순	3	145	23	장진경	3	152	29	김경애	6	245	32	양문자	3	317	37	이정화	6	54	40	이재희	15	580	46	차진희	9	222	49	조진숙	6	222	53	신은희	10	94	55	최혜빈	6	166	56	박정은	0	149	57	박수지	6	116
17	오봉명	3	114	23	장정화	6	472	29	강정숙	5	989	32	이수진	3	217	37	상선미	6	154	41	고은자	3	285	46	이쁘니	3	138	49	최길성	3	162	53	윤지현	9	247	55	천소은	2	162	56	배현나	3	232	57	이나래	9	177
17	윤종필	30	2,810	23	진은자	6	189	29	조일남	3	646	32	장경화	6	602	37	안은경	9	421	41	김미정	3	63	46	이미정	12	410	49	최주영	6	168	53	장빛나	6	152	55	엄재운	6	168	56	변소아	7	22	57	노유진	6	118
17	최순분	6	292	23	유재월	3	90	30	최정임	6	159	32	우미정	3	117	37	지지은	3	222	41	오유리	6	159	46	김민정	3	192	49	홍다은	3	154	53	조민정	1	194	55	곽희환	6	166	56	송기연	6	142	57	권민(민준)	15	205
17	인정숙	15	846	23	정경숙	4	46	30	이미혜	3	96	32	채민숙	6	38	37	최지민	6	417	41	이현아	6	215	47	장정은	9	156	50	김유리	6	233	53	최연주	6	260	55	정겨운	6	166	56	손별이	3	157	58	고유지	3	75

좋은 날, 좋은 글

따사로운 봄 햇살과 함께 읽을 시집 추천

겨우내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계절이 찾아왔다. 푸릇푸릇한 싹이 움트고,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활짝 피어난 꽃향기에 마음이 구름처럼 두둥실 떠오른다.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시집 한 권을 손에 들고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을 갖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날은 없다. 일렁이는 마음을 달래기 위한 꽃과 같은 아름다운 시집 두 편을 추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시집은 나태주 시인의 ‘마음이 살짝 기운다’이다. 이 시집은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와 같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인, 나태주의 신작이다. 끝벌이 예쁜 꽃에서 꿀을 가져와 벌꿀을 만들 듯, 시인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살포시 가져와 시로 써 내려간다고 말한다. 늘 그랬듯이 소소함 속에서도 진하게 느껴지는 여운과 다정한 감정이 녹아 있는 시인의 작품들은 우리에게 일상의 행복감을 선사한다. 감사함,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과 슬픔 등 폭넓은 정서에 관해 노래한 시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다가온다. 이 덕분에 시를 차근차근 읽다 보면 자신을 발견한다. 누군가의 따스한 응원이 필요하다면 이 책이 당신을 포

근히 감싸 안아줄 것이다. 두 번째 시집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다. 이 책은 그리움, 정한, 동경의 마음, 향수, 그리고 삶을 큰 테마로 뒀다. 시인은 우리의 마음속 밑바닥을 관통하는 사랑의 감정, 이별의 슬픔, 고향을 향한 향수 같은 정서를 담아내고도 유려한 시어로 풀어냈다. 또한, 나태주 시인의 지문을 얻어 최대한 초판본 표기를 간직해 시어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우리 곁에 머물 시들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오면서도 오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줬다. 김소월 시인의 시는 한 편 한 편 곱씹어 볼수록 그 속에 담긴 풍부하고도 진한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에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음미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가 가진 힘은 실로 대단하다. 고작 짧은 문장 한 구절이지만 그 한 문장은 내 감정선을 마음대로 흐트려 놓는다. 그리움을 달래고 싶을 때, 슬픔을 위로받고 싶을 때, 사랑을 느끼고 싶을 때, 그리고 시집을 펼칠 수밖에 없게 하는 좋은 날에 한 권의 시집을 손에 들고 가만히 앉아 나를 위한 시간을 온전히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4년 이수지 기자
suuji0331@naver.com



봄이 주는 비밀편지

봄에 선물하기 좋은 꽃 추천

우리는 종종 연인에게,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꽃을 선물한다. 꽃은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와 시기, 그리고 종류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해 언제, 누구에게 선물해도 이상하지 않은 만능 선물이다. 또한 각각의 꽃에는 저마다의 꽃말이 있어, 직접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하는 편지가 될 수도 있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로, 꽃의 색이 다양하며 색마다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다. 붉은색은 ‘사랑의 고백’, 보라색은 ‘영원한 사랑’, 노란색은 ‘혼자 하는 사랑’, 분홍색은 ‘애정’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주황색, 망고 튤립은 각각 ‘부끄러움’, ‘수줍게 하는 사랑의 표시’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숨겨왔던 감정을 나타내기에도 좋다. 이처럼 꽃의 색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튤립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메타세쿼이아는 가로수로 자주 사용되며 실내의 방음장치, 포장재 등으로도 사용되는 나무이다. 한국 전역의 공원이나 도로변에 가로수로 널리 심기도 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이다. 메타세쿼이아는 봄이 되면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이 꽃의 꽃말은 ‘영원한 친구’이다. 친구에게 꽃을 선물한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친구를 축하해주거나,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고 싶을 때, 메타세쿼이아 꽃이 친구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버이날에 떠오르는 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은 카네이션을 떠올릴 것이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모정’이다. 그 외에도 당아욱, 만년청 등 모성애를 뜻하는 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부성애를 뜻하는 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동초’이다. 인동초의 꽃은 흰색으로 피기 시작해서 점차 노란색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금은화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이번 어버이날에는 지금까지 많이 선물해왔던 카네이션 대신에 만년청, 인동초 등의 이색적인 꽃으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보자.

꽃은 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 하나이다. 거리에 형형색색으로 피어난 꽃들은 바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잠깐의 치유를 선물한다. 그리고 꽃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기도 한다. 이번 봄에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변의 꽃을 둘러보는 여유를 한 번쯤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꽃말의 의미를 떠올려 보며 마음속에도 화사한 꽃을 피워보면 좋을 것 같다.

2년 김민성 기자
minseung555@naver.com

포토에세이

화창한 봄날의
플레이리스트

이수지 (4년)

- 나만, 봄 - 볼빨간 사춘기
Blueming - 아이유
Love Day - 양요섭, 정은지
Love Blossom - 케이윌
네 생각 - 존박
봄이 부시게 - 엔플라잉
개화 - LUCY
I Love You - 악동뮤지션
당신과는 천천히 - 장범준
꽃송이가 - 버스커 버스커
Happy - 태연
있잖아 - 폴킴
우연히 봄 - 로꼬, 유주
예뻐어 - DAY6
봄날의 기억 - 비투비
말해! 뭐해? - 케이윌
푸르던 - 아이유
마음세탁소 - 규현
Dream - 수지, 백현
Falling - 존박
와르르 - 콜드
MOVIE - JUNNY
Bunny - 백예린



기수					기수					기수					기수					기수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58 김기서	3	51	59 이우진	3	36	60 신나은	9	72	61 김다희	3	12	62 정서현	6	24	63 정서현	3	12	64 정서현	3	12	65 정서현	3	12	66 정서현	3	12
58 김다희	3	39	59 이채원	9	108	60 신은경	6	48	61 김민주A	3	12	62 정유선	3	12	63 정유선	3	12	64 정유선	3	12	65 정유선	3	12	66 정유선	3	12
58 김민송	9	154	59 이혜진	9	108	60 오성민	9	72	61 김민주B	3	12	62 조혜린	1	6	63 조혜린	1	6	64 조혜린	1	6	65 조혜린	1	6	66 조혜린	1	6
58 김예진	3	51	59 이호송	6	70	60 이도아	3	24	61 김민지A	3	12	62 채서연	1	5	63 채서연	1	5	64 채서연	1	5	65 채서연	1	5	66 채서연	1	5
58 리해민	3	51	59 장혜연	3	35	60 이아영	9	72	61 김성환	2	11	62 피예지	3	12	63 피예지	3	12	64 피예지	3	12	65 피예지	3	12	66 피예지	3	12
58 박 정	3	51	59 정우경	9	108	60 이진주	9	72	61 김수경	3	12	62 한성현	6	24	63 한성현	6	24	64 한성현	6	24	65 한성현	6	24	66 한성현	6	24
58 송소연	4	77	59 최애경	9	108	60 이혜정	3	24	61 김정은	6	24	62 홍도웅	2	11	63 홍도웅	2	11	64 홍도웅	2	11	65 홍도웅	2	11	66 홍도웅	2	11
58 유선호	3	51	59 최정훈	6	72	60 임찬혁	9	72	61 김지현	3	14	62 홍현표	3	12	63 홍현표	3	12	64 홍현표	3	12	65 홍현표	3	12	66 홍현표	3	12
58 윤형은	6	102	59 황예리	3	36	60 장근창	9	72	61 김현빈	3	12	62 황경아	3	13	63 황경아	3	13	64 황경아	3	13	65 황경아	3	13	66 황경아	3	13
58 이석범	3	51	60 김지민	2	74	60 정은희	3	24	61 김해수	3	11	62 황정현	3	6	63 황정현	3	6	64 황정현	3	6	65 황정현	3	6	66 황정현	3	6
58 이진명	4	77	60 이선영	6	78	60 최지영	3	24	61 류은진	3	6	62 류은진	3	6	63 류은진	3	6	64 류은진	3	6	65 류은진	3	6	66 류은진	3	6
58 정민경	4	77	60 강다정	3	54	60 김나영	3	88	61 박서은	3	12	62 박서은	3	12	63 박서은	3	12	64 박서은	3	12	65 박서은	3	12	66 박서은	3	12
58 정지섭	3	51	60 강민지	6	48	60 김해진	9	72	61 박주혜	3	12	62 박주혜	3	12	63 박주혜	3	12	64 박주혜	3	12	65 박주혜	3	12	66 박주혜	3	12
58 허유경	3	51	60 강형주	3	24	60 박규송	3	23	61 박태희	9	36	62 박태희	9	36	63 박태희	9	36	64 박태희	9	36	65 박태희	9	36	66 박태희	9	36
58 홍한지	4	77	60 객해민	3	24	60 박은지	9	72	61 백재민	3	14	62 백재민	3	14	63 백재민	3	14	64 백재민	3	14	65 백재민	3	14	66 백재민	3	14
58 황예민	3	51	60 김노을	3	24	60 박해원	6	50	61 성태영	15	60	62 성태영	15	60	63 성태영	15	60	64 성태영	15	60	65 성태영	15	60	66 성태영	15	60
59 고영진	9	108	60 김소연	6	48	60 신소현	9	72	61 손주희	15	60	62 손주희	15	60	63 손주희	15	60	64 손주희	15	60	65 손주희	15	60	66 손주희	15	60
59 권지슬	3	38	60 김슬기	9	102	60 조예설	3	24	61 송채운	3	12	62 송채운	3	12	63 송채운	3	12	64 송채운	3	12	65 송채운	3	12	66 송채운	3	12
59 김도희	3	36	60 김정은	6	48	61 강정훈	4	22	61 양은주	15	60	62 양은주	15	60	63 양은주	15	60	64 양은주	15	60	65 양은주	15	60	66 양은주	15	60
59 김민영	6	70	60 김지현	6	48	61 강 찬	1	10	61 유은아	3	16	62 유은아	3	16	63 유은아	3	16	64 유은아	3	16	65 유은아	3	16	66 유은아	3	16
59 김한지	3	35	60 김현진	3	24	61 강해진	3	12	61 이다경	3	12	62 이다경	3	12	63 이다경	3	12	64 이다경	3	12	65 이다경	3	12	66 이다경	3	12
59 서지민	9	87	60 기민정	9	72	61 고나영	3	12	61 이수민	3	12	62 이수민	3	12	63 이수민	3	12	64 이수민	3	12	65 이수민	3	12	66 이수민	3	12
59 우효림	3	36	60 박한일	6	48	61 고노원	6	22	61 이지영	3	12	62 이지영	3	12	63 이지영	3	12	64 이지영	3	12	65 이지영	3	12	66 이지영	3	12
59 윤유정	6	72	60 박해리	6	48	61 고현은	15	60	61 이호정	2	20	62 이호정	2	20	63 이호정	2	20	64 이호정	2	20	65 이호정	2	20	66 이호정	2	20
59 이령화	3	40	60 서지원	3	24	61 김7람	1	10	61 임영아	3	12	62 임영아	3	12	63 임영아	3	12	64 임영아	3	12	65 임영아	3	12	66 임영아	3	12
59 이세연	6	72	60 송주연	6	48	61 김근영	1	8	61 전현지	3	12	62 전현지	3	12	63 전현지	3	12	64 전현지	3	12	65 전현지	3	12	66 전현지	3	12
59 이유빈	9	105	60 신나미	6	48	61 김나현	3	12	61 정다민	6	33	62 정다민	6	33	63 정다민	6	33	64 정다민	6	33	65 정다민	6	33	66 정다민	6	33

기수					기수					기수					기수					기수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소병국(56기)	9	512	박옥경(62기)	6	70	이혜재(64기)	9	66	정준호(64기)	6	44	한명희(64기)	15	110	김소현(64기)	30	820	박종욱(64기)	6	32	김철우(64기)	9	42	김철민(64기)	50	50
방극률(56기)	2	492	박홍택(62기)	15	215	정준호(64기)	6	44	한명희(64기)	15	110	김소현(64기)	30	820	박종욱(64기)	6	32	김철우(64기)	9	42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지연(57기)	470	3,260	김병선(62기)	10	235	한명희(64기)	15	110	김소현(64기)	30	820	박종욱(64기)	6	32	김철우(64기)	9	42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장혜선(57기)	9	315	권학민(62기)	9	66	김소현(64기)	30	820	박종욱(64기)	6	32	김철우(64기)	9	42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박주권(59기)	10	154	윤영환(62기)	5	150	박종욱(64기)	6	32	김철우(64기)	9	42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주영길(62기)	9	144	민동준(63기)	30	350	김철우(64기)	9	42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서호철(62기)	6	96	정승지(63기)	3	35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영미(62기)	30	480	서영수(63기)	30	36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박철(62기)	6	96	박세원(63기)	6	72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박태웅(62기)	9	144	권영희(63기)	15	18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이종현(62기)	15	240	성영선(63기)	3	36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정강진(62기)	30	480	임지현(63기)	3	503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서현철(62기)	15	240	권영민(63기)	15	18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유재근(62기)	9	144	윤정림(63기)	15	175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서방원(62기)	1	178	김민애(63기)	6	101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백남석(62기)	15	305	정소은(63기)	15	165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강지숙(62기)	2	90	백영현(63기)	30	24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권순원(62기)	6	94	김지수(63기)	30	55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장민규(62기)	4	120	이영희(64기)	6	144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조영국(62기)	3	45	이강우(64기)	9	66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김철민(64기)	50	50

기수					기수					기수					기수					기수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간후62기	송지연	3	44																					

기수					기수					기수					기수					기수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김성주	3	33	김영민	15	300																			
전예수	6	100	서석관	3	59																			

■ 총 기금 : 3,309,123,270원

문 의 처

재단법인 국간사 발전기금 사무국
T. 042-878-4537 (일반) 975-4537 (군) F. 042-876-4504
대체관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90 국군간호사관 학교
국간사 발전기금 사무국

계좌번호 (구좌:1만원)

• 국민 은 행 : 468-01-0042-164
• 농협중앙회 : 489-17-007491
• 우 체 국 : 311712-01-001125
• 우리 은 행 : 1005-001-417085
• 하나 은 행 : 659-910014-57704
• 신한 은 행 : 100-024-743184

계좌번호예금주 : 재단법인 국간사 발전기금

※ 발전기금 입금시에는 성명과 함께 기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기의 졸업 및 임관식을 축하합니다

'별처럼 하늘 아래 빛날 우리'라는 이름처럼,
앞으로 찬란하게 빛날 별하리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